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장은*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킬로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아름다운 도시이며 'Heaven on earth'라고 불린다고 홈스테이맘께서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okanagan college는 킬로나에 있는 두 개 대학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고 순천향대학교와 비교하자면 인문대부터 자연대, 학생회관, 공대건물정도의 규모로 작은 편입니다.
수업	저희 수업을 맡은 Julie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셨고,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습니다. 분반없이 저희만으로 강당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을 사용해 진행했습니다. 수업은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이루어졌고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표현 등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외의 영어 발음이나 실생활에 쓰는 표현에 관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추가로 영어 발음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던 토요일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이 수업엔 오키나간 대학에서 영어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실제 학생들이 선생님이로 해주셨습니다.
Activity	공식 스케줄에 예정되어있던 야외 활동은 시티투어 및 와이너리투어, 볼링,스케이트장, First Nation체험, 쇼핑, 하키, 스키, 컬링이 있었고, 수영 활동이 있었지만 수영복을 미처 준비하지못해 볼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주말에 친구들과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Activity들이었지만 홈스테이맘께선 여름에 오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이 엄청 많이 오나요? 라고 묻자 이번 겨울 유독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온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덜 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두꺼운 패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춥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속에 히트택을 단단히 입고다니세요.
안전	오후 5시면 해가 저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귀가를 일찍하고 잠에 드는 시간도 이릅니다. 밤 늦게까지 열거나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드뭅니다. 게다가 버스도 늦게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집에 일찍일찍 다니세요.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없어서 무서워요. 아주 깜깜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 저희 홈스테이맘은 굉장히 오픈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였습니다. 귀가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미리 연락을 해드리면 항상 OK를 해주셨습니다. 딱히 규칙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었고 등교시간이나 버스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준비하면서, 또는 저녁 늦게 귀가할 때 살금살금 움직여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 세가지 방법을 고루 사용했는데, 학교 식당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맛있었습니다. 또 홈스테이집에서는 낮잠을 자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홈스테이가족과 식사 시간이 안맞는 경우가 잦아서 알아서 챙겨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샌드위치나 전날 냉장고에 넣어두신 음식을 전자렌지에 돌려먹거나 했습니다. 방과 후 놀러가거나 쇼핑을 갔을 때는 외식이 불가피했는데 팁이나 세금이 붙는 것 외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교통	한국과는 조금 다른 도로교통시설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도로이름이라던가 버스가 굉장히 생소해 구글맵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버스가 어디 정류장쯤 왔는지, 몇분이 걸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릴 정류장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창밖을 잘 보다가 익숙한 곳이 나오면 내려야합니다. 또한 제 경우는 아니지만 구글맵으로 버스 내릴 시간을 확인하고 내렸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구글맵은 버스가 안 오는 경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버스가 가끔 자기 맘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버스오기 약 10분 전부터 나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안왔지만요. 하루에 안오는 걸 두 번이나 겪어서 굉장히 화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번호가 바뀝니다. '1번 버스 탔으니까 1번 방향으로 돌아가겠지'가 길을 잃게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구글맵으로 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나 맞는 길로 가고있나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약 350,000원	
기념품	약 100,000원	
활동	약 10,000원	친구들과 수영장
외식	약 100,000원	white spot, milestone 꼭가세요
그 외	약 140,000원	기타 등등
합계	2,200,000원	환전해 간 돈

5. 출국 전 준비사항

스케줄 확인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스케줄에 맞춰 필요한 것을 챙겨가야겠고 저같은 경우는 외국 여행이 아예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리둥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 로밍을 했기 때문에 가서 알게된 친구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기 어렵고, 카톡 페이스톡이나 보이스톡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캐나다 유심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캐나다 번호가 생기고 그 번호로 연락을 주고 받는게 부러웠습니다. 물론 3주간만 사용할 수 있는 캐나다 번호지만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행이나 비행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제가 가족들과도 아닌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캐나다로 훌쩍 떠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도 짙짙 친구를 쫓아가고 두리번거리는게 영 웃긴 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벤쿠버까지 약 10시간, 또 킬로나까지 1시간의 비행 뒤에 겨우 도착해 홈스테이 맘이 픽업했고 공주방 아닌 공주방을 쓰게되었습니다. 화장대, 테이블, 굉장히 편한 소파 그리고 옷장방까지 굉장한 호사스러운 방이었는데도 남의 떡이 더 커보이는 법이라 여러 방 중에서 골랐네, 집이 학교와 가깝네 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3주간 지낸 5460 mountainside lane, 호스트맘 Hetal의 집은 학교와는 꽤 거리가 있는 지라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총 30~40분이 걸렸습니다. 원래 멀미가 심해서 차멀미 때문에 많이 걱정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디에서 내릴지 안 알려주는 버스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서 멀미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킬로나는 와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와인 농장만 300여개가 있다고 했고, 킬로나 옆에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고, 그 다리 건너 풍경이 장관입니다. 아니 그냥 이곳 풍경은 그냥 하나하나가 장관이라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면서 최대한 그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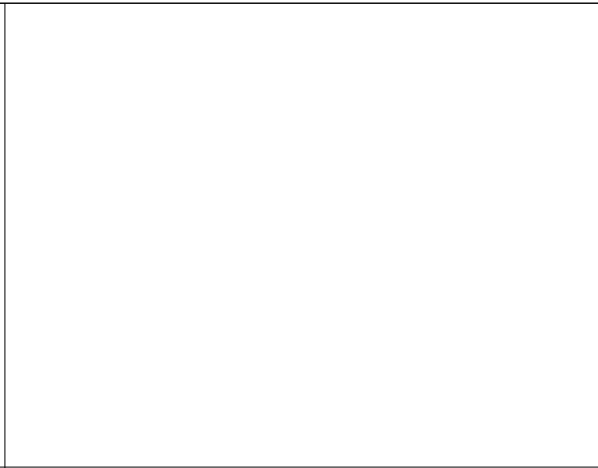
킬로나에 있는 Orchard park mall은 쇼핑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천국같았어요. 쇼핑을 좋아해서 자주 갔습니다. 싼 가격에 즐거운 쇼핑을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MAC 립스틱이 면세점보다 싼 가격에 팔아 물에 갈때마다 구경하는 1순위 상점이 되었습니다. 세포라, 블루노트, 어반플레닛 등 질 좋고 싸게 파는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점에 둘러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교통편애기를 덧붙이자면, 버스 번호 뿐 아니라 버스가 향하는 행선지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1번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종착점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다운타운에 갈 때 타는 퀸즈웨이행과 집에 갈 때 타는 미션 렉행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한번은 물에 놀러갔다가 집에 가려는데, 물에서 학교로 간 뒤 집에 가는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밖에 몰랐던지라 학교에 도착해 한참을 기다린 뒤 버스를 타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타야할 것을 반대 방향가는 버스로 잘못 타서 버스 종착점인 퀸즈웨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1번 버스니까 1번 방향으로 돌아가겠지'하는 생각으로 계속 타고 있다가 구글맵을 확인한 친구가 이 방향이 아니라며 후다닥 내리고 보니 버스의 번호가 10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집에 갈걸 2시간이나 걸려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착륙 준비하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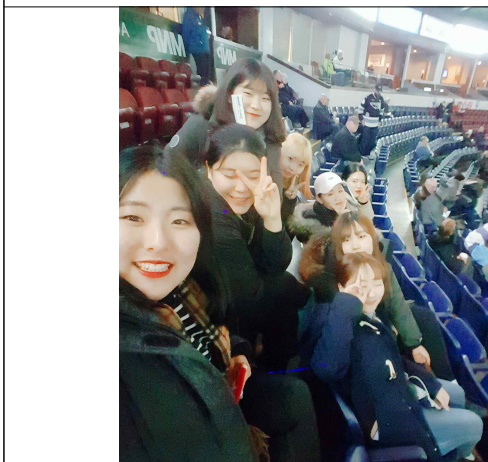
집 가는길에 너무 이뻐서 찍음



캐나다 스페셜 코인 25센트



볼링장갔을 때



하키경기 보러갔을때



잘 다녀오겠습니다